

스페인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라틴아메리카의 두 작가

송병선_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금년 라틴아메리카의 문학계는 두 명의 훌륭한 작가를 잃었다. 그 중의 한 작가는 짧은 삶을 살았고, 또 다른 한 작가의 작품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짧다. 그러나 그들이 문학에 남긴 흔적과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길고 크다. 또한 그들은 문학을 교육기관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을 통해 배웠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금년 7월 15일자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일간지들은 톱기사로 된 살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난 칠레 작가를 다루었다. 기사의 주인공인 로베르토 볼라노스는 현재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이끌어가는 주요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라틴아메리카의 '봄' 세대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그 이후의 젊은 세대에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칠레의 작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사벨 아옌데를 들 것이다. 그러나 그녀 못지않은 세계적 지명도를 누리고 있는 알베르토 푸켓, 디아벨라 엘티트, 안토니오 스퀘르메타와 같은 작가들도 있다. 로베르토 볼라노스는 칠레가 사랑하는 이런 작가들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은 채 수많은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문학세계를 일군 독특한 작가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틴아메리카의 장정일' 인 것이다.

많은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처럼 그도 조국을 떠났다가 귀국하고, 다시 떠도는 유목민적 생활을 하면서 호구지책으로 행상도 하고 야간 경비원으로도 일하면서 시집과 소설을 출간한다. 여러 작품들 중에서도 그의 소설 《야만적 탐정들》(1998)은 스페인의 유명 문학상인 에랄데 문학상을 수상하고, 1999년에는 '스페인 어권의 노벨문학상'이라고 불리는 로물로 가예고스 상을 탄다. 그리고 그해 소설 《부적》과 《폐인 경》을 출판하고 2000년에는 《칠레의 밤》, 2001년에는 《살인 창녀들》, 2002년에는 《작은 롬펜 소설》을 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금년에 그는 자신의

가장 야심적인 작품인 《2666》의 초고를 써놓은 상태에서 출판을 연기한다. 그것은 1,000쪽이 넘는 그 소설을 수정하는 일이 힘에 겨웠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작업을 "19세기 광부와 같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앓아오던 간경화증이 악화되어 간이식 수술을 기다리던 중 지난 7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한편 최근에 출판된 라틴아메리카 문학지들은 금년 3월에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우구스토 몬테로소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태어나 멕시코로 건너와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독학했던 몬테로소 역시 국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라틴아메리카 문학계에서는 가르시아 마르케스나 바르가스 요사에 버금가는 중요한 작가로 여겨진다. 국내에서는 문학잡지 《미네르바》(2002년 여름호)에서 그의 작품이 다루어진 적이 있다.

스페인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지인 《키메라》는 '아우구스토 몬테로소: 짧음의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멕시코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라호르나다》의 문학부록 역시 몬테로소 특집을 기획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부조리와 블랙유머, 역설의 스승"으로 일컬어지며, 그의 작품은 아주 짧고 우아하고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그의 작품은 《공룡》이다. 이 작품은 "눈을 떴을 때 공룡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라고 단 한 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눈을 뜬 것인지, 공룡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통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단순한 문체 속에 집약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열린 해석을 추구하는 그의 작품이 갈수록 문학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21세기의 문학이 그런 길을 요구하고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